

전주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총력

2024년까지 484억원 투입 노후관망 정비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전주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을 대대적으로 교체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84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유수율을 현재의 78.7%에서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상수관 276km와 상수도 관망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 60곳을 정비하는 한편, 누수탐사 및 정비,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까지 7만8,376세대의 수돗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전기술검토 절차를 이행해 오는 12월 우선사업대상지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사업대상지는 하가지구와 가련산 지구, 종합경기장 인근, 고속터미널 인근이 포함된 금암금수구역으로 정해졌다.

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 수질 안정화와 유수율 제고 등 수돗물의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고 수도사

업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국비 92억원 등 총사업비 131억원을 투입해 수질사고 발생 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도 올 연말까지 구축기로 했다.

최훈식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노후관망 정비를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에코시티 세병공원 생태·사람 공존 휴식처로”

전주시, 종합개선방안 수립용역 완료... 분수 주변 야간조명 설치·실개천 조성 등 의견 나와

전주 에코시티 세병공원에 분수조명과 실개천을 조성하고, 주차장과 휴게시설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전주시는 송전동 에코시티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착수한 '세병공원 종합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용역은 최근 세병공원 이용 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단계별 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용역 결과를 도출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병공원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수 주변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실개천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과 휴식공간, 입구안내판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여기에 세병호의 수초를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질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도시농업 경작지도 이용도 높은 주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향후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 개선방안을 단계별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세병공원 내 여름철 무더위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대와 바닥분수를 조성하고 수목을 정비했으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산책로를 코르코로 포장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병공원을 생태와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기센터,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을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이고 농가구성원 소유면적이 1.55ha 미만이어

야 하는 등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7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단가는 1ha당 100~205만원으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인 50ha이다.

신청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신규신청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으로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하다.

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매월 1회 이상 영농일지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신청·접수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오는 9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된 뒤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라 관찰사와 떠나는 봄나들이’

전주시, 27일·4월 3일 '전라감영이 돌아왔다' 프로그램 해설투어·OX 퀴즈·야외 방탈출 게임 이벤트 등 진행

전주시가 전라감영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해설투어와 방탈출, OX 퀴즈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했다.

시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전라감영에서 '2021 전라감영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3일과 20일에 이어 이번에 3~4회차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객이 전라감영을 보다 재미있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젊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라 관찰사와 떠나는 봄나들이' 콘셉트로 기획했으며, ▲전라 관찰사 해설투어 ▲전라감영 배, 관찰사를 이겨라! ▲전라감영 야외 방탈출 게임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라 관찰사 해설투어'의 경우 오후 1시와 3시 두 차례에 걸쳐 5명의 배우가 전라감영 관찰사로 환생해 역사를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투어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해설투어를 들

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데다 상품까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이 프로그램의 묘미다.

'전라감영배, 관찰사를 이겨라!'는 ▲품으로 말해요 ▲배달통을 보아라 ▲전라감영 OX 퀴즈 ▲참과 방패 등을 자신이 지목한 관찰사 게임을 하고 상품도 받아보는 프로그램이다. 게임의 승패와 상관없이 참여자 모두에게 전주만의 특별한 상품이 주어진다.

전라감영 야외 방탈출 게임 이벤트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모든 날짜의 신청이 마감됐을 만큼 인기가 뜨겁다. 비밀, 농부 김 씨 이야기, 정인의 하루, 누가 죄인인가, 임무 등 5가지 테마의 방탈출 게임에서 미션을 완료하면 특별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지역 예술가와 기획자 등 전문가와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전라감영 복원의 가치와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연, 전시, 상품 등 다양한 볼거리와 야간 관람 및 숙박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감영 입장 및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공작소 블로그(blog.naver.com/artf9938)와 SNS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전라감영에서 '2021 전라감영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예수대, 청년 자살예방 사업 협력 '맞손'

전주시가 코로나19와 취업난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태원)와 예수대학교(총장 김찬기)는 25일 예수대학교 켈러홀에서 청년 자살예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학생들의 우울증과 자살 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학생들의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학생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예방과 관련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



기 위해 다음 달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태원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층의 자살과 자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면서 "코로나 19와 학업, 취업난에 지쳐 있는 청년

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을 효과적으로 치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정신건강의 청신호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